

#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Divorced People's Perception of Divorc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남 영 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강 은 영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Researcher : Ok, Sun-Wh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Nam, Young-Joo

Doctoral Course : Kang, Eun-Young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the viewpoints and beliefs toward divorce held by people who have experienced a divorce. In-depth interviews with divorced individuals (two males and twelve females)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had a tendency to withdraw. In other words, they felt powerless and lonely, and they think of themselves as a failure. Second, they clearly recognized the double standard in society toward divorce. They strongly felt that people who had shown tolerant attitudes toward divorce when it was a distant phenomenon suddenly took a different attitude when a divorce occurred to a relative. The fact that openly stated viewpoints toward divorce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unstated attitudes made the participants' lives still harder by adding another burden to the difficulties they already faced from the divorce. As a result, they would rather hide the fact that they were divorced than be open about it with other people. Aside from highly significant others, they attempted to conceal their divorce from others whenever possible. Third, as people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divorce, they seem to take a more careful attitude toward divorce than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a divorce. The participants pointed to the social responsibilities to promote public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value about divorce, and they hoped that our society would communicate better about the difficulties of getting div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divorce. The participants believed this w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preventing divorce among ot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understanding toward the phenomenon of divorce in Korean society, and furth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family.

---

▲주요어(Key Words) : 이혼자(divorced people), 이혼 인식(perception of divorce),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옥선화 (E-mail : swok5481@snu.ac.kr)

\*\*\* 교신저자 : 남영주 (E-mail : yjnam2@snu.ac.kr)

## I. 문제제기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은 최근 한국 가족의 양상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현상들로 보인다. 그 중 특히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혼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통계청의 자료(2004)에 의하면 2003년 조이혼율은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한국 사회의 이혼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수로서, 이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험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혼에 관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혼율의 증가라는 이혼 실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부분이다. 행동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인과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이혼이 보편적인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혼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이는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가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한경혜, 이정화, 2002)는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은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통계청이나 한국 갤럽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수용적인 것처럼 변화하였다고 보아진다. 즉,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위에 이혼사실을 밝힌다'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일지라도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애정이 없다면 이혼하겠다'라는 응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자신의 가족을 형성조차 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기혼자라 할지라도 이혼을 직접 경험하였다기보다는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신문이나 TV, 매스미디어를 통해 발표되는 이혼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는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확산이라는 잇점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형성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한 이혼 태도나 인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들(김성희, 2003 ; 옥선화 외, 1998, 2000 ; 한경혜 · 이정화, 2002 ; 한경혜 외, 2003)이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혼 태도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대학생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 태도의 관련 변수 고찰에 이르기까지 이혼 태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사회조사나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결혼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결혼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대상들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회 여론조사나 계량적 접근을 이용한 실증 연구들은 연구 자체가 다수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게 해 준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대상자들이 아무리 이혼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이혼의 실행이라는 사회적 양상의 변화와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호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나의 이혼과 남의 이혼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이강이, 최혜영, 2005)고 하였다. 또한 내가 직접 이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에 대한 인식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이혼 양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본 이혼 태도뿐 아니라, 이혼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내부자적인 관점도 포함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질적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 논리를 현상학적인 인식론에 두고, 사물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고,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한다(조용환, 1995). 즉, 질적 접근에 의하면 이혼의 의미와 인식은 이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를 파악함으로써 이혼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바라보는 이혼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영주(2001)도 이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혼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이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혼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이혼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지, 또는

제 3자가 이혼을 바라보는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혼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경험 여부에 따라 이중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양상으로 일관성 없이 작용된다면, 이혼이라는 경험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의 모순된 태도가 가져다주는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는 이혼 여성의 적응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노영주(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자의 관점에 근거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해보는 것은 이혼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보이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회 조사나 계량적 접근에서 나타난 이혼 태도의 결과와 어떤 유사점 및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이혼자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이혼 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밝혀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양상이다. 이러한 이혼 태도에 관해서는 한국 갤럽이나 통계청에서 주관한 여론 조사 결과와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가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한국 갤럽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태도에 대한 일반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1998년에는 19.0%였는데 반해, 2002년에는 16.9%로 줄어들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답도 29.1%에서 32.9%로 늘어났다. 또한 대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혼 사실에 대해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거나(2000),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자녀의 존재에 상관없이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1995, 2002)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이혼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에 대한 여론 조사는 우리 사회의 태도 변

화 양상을 시점에 따라 재빠르게 고찰해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잊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단일 문항에 의해 측정이 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여론 조사의 대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혼 경험과 무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혼 태도나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혼을 급증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선화 등(1998, 2000)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가족 및 친족 재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한 영역으로서 이혼에 대한 허용도 및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혼관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허용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와 연관해서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부부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나 중요성이 이혼 태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혼 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혼 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 거주자의 이혼 태도를 비교한 연구(한경혜, 이정화, 2002)에 의하면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 거주자가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촌 거주자들은 자녀와 관련된 이혼 태도에 있어서 도시 거주자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의 남녀 대학생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김성희, 2003)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 태도와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한경혜 등, 2003)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부간 또는 친족과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의한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여론 조사나 학문적 고찰에서 밝혀진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입장은, 이혼을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경험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경험으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의 신문에 실렸던 이혼관련 기사가 이혼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고, 이혼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한국 사회의 변화 움직임을 반영한다는 결과(이강이, 최혜영, 2005)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이혼 태도가 결혼생활이나 이혼 후 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부부관계를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혼생활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도 적게 한다는 것이다(Amato & Rogers, 1999). 또한 Glenn (1996), Thornton(1989) 등의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라도 결혼이나 가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 개방적인 사람보다 결혼 관계 해소 이후에 우울증에 더 잘 빠지고 행복감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ooth & Amato, 1991). Wang과 Amato(2000)의 연구에서는 수입이나, 재혼과 같은 자원 변인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이혼의 경험은 청년기 자녀가 이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Axinn & Thornton, 1996 ; Kapinus, 2004)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이혼 당사자가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가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이혼 당사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혼 태도의 변화 양상을 밝혀내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과 집단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일이라는 것(조용환, 1999 : 100)과 일맥상통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의 세계가 중요시된다(조용환, 1999 : 122). 그리고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전통 중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현상학적 접근의 전통(Creswell, 1998)을 따랐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언어로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의미 속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인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하였다. 피면접자들은 아는 사람이나 인터넷 이혼자 모임 동호회를 통한 접촉, 사회복지관 방문, 종교 기관의 이혼자 모임 접촉 등을 통하여 소개받았고, 소개받은 피면접자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전화 통화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면접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전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열린 형태의 자연스러운 면접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연구 사례를 선정하는 10가지 준거적 선택 중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법(Goetz & LeComte, 1984 ;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이혼 당사자로서 이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면접자들을 소개받거나 접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면접 장소는 피면접자의 근무지나 집, 또는 피면접자 근무지나 집 근처의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피면접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심층면접이 비구조적 형태의 열린 면접이었으므로 면접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2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은 피면접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보이스 리코더를 이용해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접 이후 면접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한편, 심층 면접 내용은 이혼 전 배우자와 언제 결혼하였는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피면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게끔 하였으며, 그 이야기에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 배경,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결혼 생활, 갈등 상황,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 이혼 계기에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연구 참여자<sup>1)</sup>의 특성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혼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므로, 이혼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되 30대 이혼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성 12명, 남성 2명을 포함한 30대의 이혼자 14명이다.

조대엽(2002)에 의하면 386세대로 대표될 수 있는 30대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기본적으로 유교적 전통주의의 지지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0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인 P세대(제일기획, 2003)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즉, 30대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고등 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를 직접 주도하거나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이 경험한 일련의 생활 사건들이 그들이 이혼을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재혼 여부가 지금 현재 연구대상자들의 생활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혼 후 재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성명 <sup>2)</sup>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김영지	여	37	고졸	파출부, 식당일
최순미	여	39	대졸	전업주부
이경아	여	32	대졸	자영업(가게운영)
정효주	여	34	전문대졸	샵매니저
김국희	여	37	대학원졸	강사
민정옥	여	35	고졸	간호조무사
이희준	남	38	대졸	회사원
김재만	남	35	고졸	자영업(식당운영)
우경희	여	37	대졸	사회복지사
송지애	여	35	대졸	미술레슨
신영애	여	36	전문대졸	학원운영
문근희	여	39	중졸	복지관 위탁 가게 근무
구민정	여	33	대졸	회사원
오미옥	여	39	대졸	과외 선생님

- 1)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세계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의 세계가 더 중요시되고, 연구자의 일방적인 진행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상호 협력하여 면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므로(조용환, 1999:12), 연구대상자라는 명칭보다는 연구 참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2)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면접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령이다.

위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직업은 회사원, 간호조무사와 같은 정규직과 파출부나 식당 일을 하는 일용직,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선생님, 자영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최순미씨는 드물게 전업주부였는데,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대부분 해 주고 있었다. 교육수준 또한 중졸에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4명 중 10명이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 연구 참여자의 이혼관련 특성

<표 2>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혼과 관련된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혼 후 경과기간은 짧게는 7개월부터 길게는 8년까지 다양했으며, 2사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의이혼을 한 상태였다. 이혼 사유도 외도, 성격차이, 고부갈등, 사기 결혼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었다.

또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가 있었는데, 10사례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례는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미씨의 경우에는 딸과 함께 친정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희준씨의 경우에도 딸을 데리고 본가에서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 김재만씨의 경우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형님의 집에서 살면서 형수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두 경우를 보면, 우경희씨는 한 달에 한 두 번 자녀와 만나고, 송지애씨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이혼관련 특성

성명	이혼 사유	이혼 제기자 및 절차	이혼 기간	자녀 및 동거 유무 (팔호 안은 자녀수)
김영지	노름, 경제적 무능력	본인 합의이혼	6년	초등학생 (동거) (2)
최순미	성격차이, 마마보이	본인 합의이혼	8년	중학생(동거)(1)
이경아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본인 합의이혼	5년	없음
정효주	경제적 무능력, 양가갈등	배우자 합의이혼	3년	유치원생 (동거)(1)
김국희	사기결혼(전 배우자의 이혼사실 위장)	본인 재판이혼	7년	초등학생 (동거)(1)

&lt;표 2&gt; 연구 참여자의 이혼관련 특성 &lt;계속&gt;

성명	이혼 사유	이혼 제기자 및 절차	이혼 기간	자녀 및 동거 유무 (팔호 안은 자녀수)
민정옥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본인 합의이혼	4년	초등학생, 중학생 (동거)(2)
이희준	성격차이, 고부갈등	배우자 합의이혼	1년 5개월	초등학생 (동거)(1)
김재만	성격차이, 본인과 처가식구와의 갈등	배우자 합의이혼	3년	유치원생, 초등학생 (동거)(2)
우경희	알콜중독, 주벽	본인 소송 중 합의이혼	1년 4개월	초등학생 (비동거)(2)
송지애	경제적 무능력	본인 합의이혼	1년 11개월	초등학생 (비동거)(1)
신영애	경제적 무능력	본인 합의이혼	7년	초등학생 (동거)(2)
문근희	외도, 의처증, 경제적 무능력	본인 합의이혼	4년	초등학생, 중학생 (동거)(2)
구민정	사기결혼, 마마보이	본인 재판이혼	9개월	없음
오미옥	외도	배우자 합의이혼	7개월	초등학생, 중학생 (동거)(2)

#### IV. 이혼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어느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수치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은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가 이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혼을 나와는 상관없는 경험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경험 안에 존재하는 당사자로서 스스로 이혼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혼을 경험한 나를 바라보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혼을 바라보고 이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점들을 느끼는가에 대해 그들의 언어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 스스로를 바라보기 ; 움츠러들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혼이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즉,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만에 의해서도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흠이나 허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을 자괴감, 인생의 실패자, 위축감 등의 용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맞아요. 스스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흠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잘했던 못했던 상대방의 어떤 점으로 인해서 그랬던간에 그 당사자들한테는 상처로, 또는 어떤 흔적으로 남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하고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 스스로에 대한 ‘왜 내가 이것 밖에 안 되냐’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 가장 힘들었어요.”(이희준씨)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든가 남편하고 별 문제없이 산다고 하면 제가 아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좀 위축되고, 또 가끔은 외롭고 이런 걸 느껴요. 나 스스로가 가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최순미씨)

“내 친구들은 안 이런데 나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끝나죠, 많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 저는 제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해요.”(구민정씨)

“이혼할 당시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안정된 모습으로 핑장히 도도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 것도 다른 것에 영향 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 억울해 했어요. 다 지나가요. 분노, 아쉬움, 절망, 뭐 이렇게 죽음까지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한 7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지나가고 있는거죠.”(김국희씨)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에 이혼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구민정씨나 이희준씨 같은 경우 이혼 후 경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했던 반면 최순미씨나 김국희씨 같은 경우에는 7-8년이라는 짧

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망감, 무력감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하는데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다. 이혼자들은 이혼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스스로 움츠러들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이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중 하나가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즉, 이혼자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자신을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여기고 포함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가피하게 생겨난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의 감소를 보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이혼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계속해서 매여 있거나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이혼 이후에 더 좋아지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 것 등에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혼 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남이 나를 바라보기 ; 주변의 이중적인 잣대

### 1) 이중적인 잣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위 사람들의 경우 이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하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다가도 아는 사람과 이혼을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잣대나 기준에 의해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점을 아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선행 연구(옥선화 외, 1998, 2000 ; 한경혜, 이정화, 2002)에서 한국 사회의 대다수가 이혼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혼의 원인을 당사자 자신에게 귀인시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혼의 청년들이 이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반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성희, 2003)는 점도 결국 우리 사회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바로 나와 관련되거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는(이강이, 최혜영, 2005) 지적과 일치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 이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로서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절실하게 지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가까운 친구나 의미 있는 타자들에 의해 나타날 경우에, 이혼자들은 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지거나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오미옥씨는 이혼을 전후하여 달라진 친구들의 태도로 인해 다시금 세상은 냉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웃들은 이혼한 사람을 안 좋게 봐요. 부부끼리 많이 만났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불쌍하다' 이렇게 대응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나 너랑 더 이상 못 만나'하고 딱 끊어버린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 경우이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세 쌍의 부부들, 너무 친한 경우였는데, 제가 좀 힘들어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이 부인들이 다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혼은 멀리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만 허용적인 거예요."(오미옥씨)

"아, 제가 한 번은 이혼하고 나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상처받았어요. 근데 남자가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한 1년 넘게 사귀었었어요.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 여동생이 저랑 먼저 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애 오빠를 알게 되어가지고,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랑 동생이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난거예요.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참 잘해주시고, 그 엄마가 얘기했던 게 내가 너를 양딸처럼 대하라고 한다면 너를 딸로는 삼을 수 있지만, 내 아들의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때 한창 이혼녀하고 총각의 결혼이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오빠의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거리로 인정은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남의 이야기이지, 내 아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혼율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랑 상관없을 때의 일이죠. 그때가 오히려 이혼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혼은 어쨌든 제 의지대로 한 것이지만, 나중에 일어났던 일은 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이경아씨)

이처럼 특히 이경아씨는 재혼 상대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던 상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혼 경험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헤어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재는 잣대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상을 재는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혼자에게는 이혼이 가져다 준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그들의 이혼 후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만씨의 경우도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주위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그들의 태도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신 또한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방관자나 외부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이혼한 사실을 숨기다가 두 번째 모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보이지 않는 묘한 것 있잖아요. 경계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약간의 꺾끄러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는 내색을 안 하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김재만씨)

우경희씨는 직장을 구할 때 면접 과정에서 체험하였던 이중적인 잣대를 지적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사고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이혼할 수도 있지 뭐라고 말하는데, 진짜 취직을 해서 면접을 볼 때 이혼했다는 것을 말해야 되나 숨겨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요. 이런 걸 보면 아직 이혼이 보편적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봐요. 그리고 꼭 ‘왜 바람피웠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됐어’하고 물어봐요. 저는 직업이 개인적인 분야니까 좀 덜한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좀 다른 눈으로 본대요.”(우경희씨)

민정옥씨도 이혼 뿐 아니라 외도에 대한 이중성의 예를 들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 기준에 대해 따끔히 지적하였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것, 뭐, 다른 부인들이 과거가 있으면 다 이해한다 하면서도 내 와이프가 갖고 있는 과거는

절대 이해 안 하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타인이 하면 스캔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피부에 와 닿기 전에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혼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지요. 저도 만약에 지금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보도를 접했다면 그랬을 거예요.”(민정옥씨)

결국, 이혼을 스스로 경험한 당사자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주위 사람들이 들이미는 이중적인 잣대이다. 이중적인 잣대는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같은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흔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혼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공개되는 이상은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되기도 한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들은 주위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우와 취급을 받는다. 스스로 느끼는 우울감이나 패배감 등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인식이지만, 이중적인 잣대는 그들을 향한 타인이나 사회의 인식이므로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2)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기

한편,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이 내가 이혼자 집단에 속해있지 않을 때와 내가 이혼자 집단에 속하고 난 후 급격하게 바뀌며, 이러한 비밀관적이고 모순적인 주위의 태도로 인해 이혼자들은 자신의 이혼 사실에 대해 당당히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싶어 한다.

“이혼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싫어해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피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 애들은 다 괜찮게 살고 있고,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구민정씨)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혼했다고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야기하고, 하물며 미장원에 그렇게 오래 가서 단골 미장원인데도 아는 척하고 와서 ‘아유, 아저씨는 잘 계세요?’라고 얘기하면 ‘응, 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 이혼했잖아’ 그렇게 이야기 할 텐데,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가엾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게 싫으니까.”(최순미씨)

이처럼 자신의 이혼 경험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



과 눈길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 주위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달라질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혼 경험 후 이사를 가는 일도 흔하게 나타난다. 이혼 후 본가나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근희씨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 후 실제 주거지를 옮겼다.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절친한 친구들은 오래 이혼 경험을 공유하고 큰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가끔 얼굴을 한 번 보는 정도의 친구들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희준씨의 경우에는 회사 내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기도 하다가,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부부 동반 모임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주도해나간다고 했다. 신영애씨의 경우도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빠지지 않고 만났지만, 그 이외의 교회 친구들 모임과 같은 곳에서는 이혼 후 전혀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의 정효주씨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 교회에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교회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저 혼자 기도하는 걸로 하거든요.”(정효주씨)

한편, 자신의 이혼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나, 일상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사람들, 또는 직장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사람들, 종교 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등 2차적인 인간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이혼 사실은 자신에 의해 관계의 친밀 정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차단되기도 하지만, 이혼 당사자의 부모에 의해 부모에게 의미 있는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에게까지 숨겨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혼 사실 숨기기는 이혼 당사자들에게 자식된 입장에서 못 할 짓이라거나 죄인과 같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그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엄마가 나서서 친척들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효주씨와 우경희씨의 경우의 이야기이다.

“모르는 경우는,....어떤 친척들은 아직 몰라요. 친척들이 많은 친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부모님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뭐 얘기를 하나. 그리고 친척들은 또 계속 왕래를 하는 것

도 아닌데, 그냥 때 되면 보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친척들은 아직 모르고...”(정효주씨)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가 이혼한 사실을 1년 동안 친구, 친척들한테 다 속였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명절 때 엄마랑 아버지랑 큰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려요. 그러면 큰 집에 딱 내려다주고 우리 엄마가 야 누가 볼까 무서우니까 빨리 가래요. 그러면서 내려다주고 다시 집에 오고, 그래서 제가 이혼한 것을 엄마가 한 1년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어르신들끼리 어디를 갈 때 엄마 내가 태워다줄게 타,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아가씨는 누구야, 그러면 딸이에요, 딸이 있었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그냥 놀러왔어요 이려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네가 있어서 엄마가 자신이 동네에서 할 말을 잃었대요.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는 부러움의 대상 1순위세요. 아버지가 연금이 나오니까 노후 생활이 보장되시고 두 부부가 건강하시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사는거야. 얼마나 죄송한지... 저희 엄마 세대는 결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세대였던 게 확실한데, 사실 지금도 은근히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우경희씨)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한 사실을 굳이 당당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 갤럽(2000년)의 조사 결과에서, ‘굳이 이혼 사실을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51.7%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주위에 이혼 사실을 밝힌다’라고 답한 사람 또한 46.6%나 되었다는 사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혼과 나의 이혼을 구분해서 보는 주위의 인식을 피해 나갈 방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혼 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3. 내가 사회를 바라보기 ; 경험자로서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이혼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들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 절친한 친구들이나 부부간에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가끔 이혼을 먼저 경험한 선행자로서 이들에게 상담을 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문근희씨, 최순미씨, 이경아씨, 김재만씨 모두 이혼에 대한 충고와 상담자 역할을 한 경험이 있었다. 문근희씨는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가도 결국은 조금 더 신중해 지길 바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것은 할 짓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편해서 그런지 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몇 달 동안 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도 막 갈팡질팡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말 그러니까 말이라도 편하게 그 사람을 해주고 싶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래도 가정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 정말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 자꾸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의 솔직한 내 심정은 인연이 아니라면, 정말 인연이 아닌데 이렇게 참고 사는 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한 사람은 마음 변했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 참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없는 마음으로 억지로 오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불쌍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억지로 사는 사람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도 지켰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면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마음이 좀 변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변해서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오고, 그러면 참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희망만 있다면 그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문근희씨)

김재만씨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한테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또 이혼해보니까 이러 면에서는 이렇더라, 또 저렇더라 라고. 제수씨나 너나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조언을 많이 해줬죠. 이혼이라는 게 그렇더라구요, 그게 참,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저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 줄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어도 다시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아요."(김재만씨)

최순미씨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조자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다.

"그 친구 결혼해서, 결혼해서 맨날 살다보면 지지고 볶잖아요. 언제 보면 내일 당장 이혼할 것 같더라도 또 살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은 친구랑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운대나? 그래서 막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혼하라고 안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최순미씨)

이미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혼의 과정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거나, 지옥 같은 결혼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혼을 선택했으며, 그 이후에 이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이미 인지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자신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이혼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의 이혼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결혼이 가지는 의미, 더 나아가 인생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보고 성찰해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세상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송지애씨와 정효주씨의 경우는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향해야 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부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혼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바뀌고요. 그치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인식 하에서 쉽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막 그런 게 자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참 그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좀 다르게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다르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이혼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허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크고 상처가 많다는 것을 젊은 사람한테 의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 나만 그렇게 내 편한 대로 하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편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이 또 하나 깨어진다는 것을 좀 많이, 좀 뭔가의 의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들 쉽게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너무 힘들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힘들더라구요."(정효주씨)

"근데 저도 이혼을 했지만, 굳이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찬성이나 뭐 그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어르신들 이렇게 한평생을 같이 해 오신 분들을 보면 저도 부럽죠. 부럽고 그런 분들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우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너무나 그 때는 서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짧지 않았나, 충분히 좀 더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 그래,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다던데, 뭐,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게 사실이에요."(송지애씨)

즉,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화했다는 여론 조사의 결과나 그에 대한 보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단순히 반영해주기도 하지만, 그 반면 갈등 상황에 처해있거나, 또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혼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태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게끔 촉발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되는 현재의 사회 체계 속에서 이혼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혼 태도 변화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정보나 지식의 습득을 위한 중심 수단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이혼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대한 정보의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 IV. 결론 및 논의

각종 통계치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혼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도 이혼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이혼 고아 등이 이혼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항상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허용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매스미디어를 통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며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어왔던 자녀의 존재도 과거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한국 갤럽, 1995 ; 2002).

특히, 일반적 사회조사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주로 조사대상자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동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과연 그렇다면 직접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혼은 흔히 거론되는 허용적인 태도로의 변화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가라는 의문점에서 본 연구는 비롯되었다. 이혼을 스스로 경험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는 이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14명의 이혼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혼을 경험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 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 그들은 힘들어하고, 우울해 하며, 자괴감을 가지거나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긴다. 설사 자신이 이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 직업이라든가 사회 활동과 같은 분야에서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의 오점이나 허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이혼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의 나와 이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나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주위의 이중적인 잣대는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이외에 그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달라진 눈들을 피하기 위해 이혼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자신의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리고 정서적 지지를 그들로부터 제공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끔씩 보던 친구들, 자주 보지 않는 친척들, 어릴 때부터 다니던 종교 기관 등을 멀리 하게 되고 가끔적이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는 비단 이혼자

자신에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혼자의 가족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혼자들의 부모들이 자식의 이혼 사실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리 수용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수용이라기보다는 어떤 틀에 의해 고정된 관념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선형자로서 이혼에 대해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후회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남들의 이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생겼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가 이혼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달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이혼현상에 대한 함의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의 이혼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혼 당사자의 경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아무리 허용적으로 변화했다 하더라도, 이혼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허용성과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성의 괴리에서 더 힘들어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혼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점이 바로 이중적인 잣대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혼 현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부자인 이혼 당사자들은 점점 더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는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이혼을 둘러싼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이혼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강이, 최혜영, 2005)는 지적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이혼자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또 그러한 정보를 통해 이혼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혼의 급격한 증가나 이혼 사유의 변화는 우리 사회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이혼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가족, 친척을 포함하는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혼 당사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가 이웃이나 친척에게 자녀의 이혼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혼자들의 삶을 더

욱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나 이혼자들의 자녀는 물론이고, 이혼자들의 부모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구 또한 한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혼이 주는 영향은 당사자의 형성가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원가족에게도 그 의미가 연장되는 집합적 의미를 가진 경험이므로, 이혼자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이혼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도, 원가족에게 미치는 이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차 개발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정책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이혼 전 상담제와 이혼 숙려기간제도의 홍보와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혼에 대해 더욱 신중해진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또 이혼과 관련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혼하게 될 경우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부부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혼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내부자의 관점으로 이혼 현상에 접근하여 이혼자들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변화는 했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될 때는 다르더라도'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혼과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혼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2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3일

#### [참 고 문 헌]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1998).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2000).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이강이 · 최혜영(2005).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1940~1990년대 조선·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9), 129-141.
- 제일기획(2003). P세대 조사보고서 [www.cheil.com/popup/img/p\\_report.pdf](http://www.cheil.com/popup/img/p_report.pdf).
- 조대엽(2002).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조용환(1995). 일상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논총*, 7, 13-32.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한경혜 ·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 한경혜 · 강유진 · 한민아(2003). 이혼 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Amato, P. R. & Rogers, S. J.(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 Axinn, W. G. & Thornton, A.(199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dissolution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Demography*, 33, 66-81.
- Booth, A. & Amato, P.(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Glenn, N.(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 Kapinus, C. A.(2004).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s toward divorce on offspring's attitudes: Gender and parental divorce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5(1), 112-135.
- Thornton, A.(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73-893.
- Wang, H. & Amato, P. R.(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8.
- [www.gallup.co.kr](http://www.gallup.co.kr)
- [www.nso.go.kr](http://www.nso.go.kr)